

# 칸트의 인과론에 대한 연구 1

[제2유추]를 중심으로

박 정 하

##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인과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가?
3. 시간적 계기로서의 인과관계
4. 시차없는 인과의 문제
5. 인과법칙과 필연성
6. 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자유와 필연>이란 철학적 주제는 철학사를 꿰뚫어 여러 영역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되풀이되어 온 주제이다. 전통적으로 형이상학의 한 주제였던 이 문제는 근세이후 자연과학의 발전 속에 자연과학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었고 사회, 역사적인 영역에서까지 <역사법칙과 인간의 실천>이란 문제로 정식화되었다. 칸트도 이 문제를 자기철학 전체를 통해 진지하게 탐구한 철학자 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제3안티노미에서 자연필연성과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형태로 이 문제를 정식화 시킨다. 한편으로 뉴턴 자연과학이 자연필연성을 확고하게 입증했음을 부정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 <이성의 사실>인 도덕법칙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존재근거로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칸트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문제를 심각한 문제로 여긴다. 이 문제와 연관해서 칸트철학의 전체모습을 조망해 보면 크게 두가지의 중첩된 대립쌍들이 존재함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첫번째 대립쌍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립쌍, 즉 기계론적으로 이해된 자연과 도덕의 존재근거인 자유 사이의 대립쌍이다. 이 대립쌍은 원인성(Kausalität)개념을 매개로 하여 조화가 시도된다. 즉 운동인(causa efficiens)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연에 의한 원인성(Kausalität nach Natur)'과 '자유로부터의 원인성(Kausalität aus Freiheit)'의 조화가 주제로 등장된다. 두번째 대립쌍은 자연에 대한 상반된 이해이다. 즉, 『순수이성비판』의 기계론적 자연관과 『판단력 비판』의 목적론적 자연관의 대립이다. 후기로 가면서 목적인(causa finalis)을 매개로 자연과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칸트의 시도가 첫번째 대립쌍의

문제해결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리라는 짐작을 쉽게 갖게한다. 결국 자연필연성, 자유, 목적론이라는 3 개념이 칸트철학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이며, 이는 각각 원인성이라는 차원에서 운동인, 자유에 의한 원인성, 목적인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가지개념 각각의 의미와 그 관계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위의 첫번째 대립쌍, 즉 자연필연성과 자유의 문제를 원인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과제의 한 부분이다. 자연필연성, 자유, 목적론 모두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대한 작업이기에 이 연구과제는 앞의 두개념에 집중해서 첫번째 대립쌍만을 고찰하고, 목적론의 문제는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정도에 그칠 예정이다. 이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3부로 구성된다. 1부는 칸트가 매개로 삼고 있는 원인성개념이 설정되는 근거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가언판단에서 원인범주를 끄집어 낸 칸트의 입장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칸트가 염두에 두고있는 원인개념의 정확한 의미를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2부는 *causa phaenomenon*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연에 의한 원인성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제2유추를 근거로 해서 해명될 것이다. 세째 부분은 자유로부터의 원인성, 즉 *causa noumenon*의 본질을 밝히면서 이를 *causa phaenomenon*과 조화시키고자 하는 칸트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제3안티노미와 실천이성비판을 근거로 해서 해명될 것이다.

이 글은 2부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자연에 의한 원인성에 대해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보려는 것이 목표이다. 제2유추에 나타난 칸트의 인과론은 흄을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흄과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주로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라 생각하여 방향을 그쪽으로 잡았다. 논의 순서는 우선 칸트의 경우 인과 관계가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지를 분명히 규정하는데서 출발하겠다. (2절) 왜냐하면 인과의 양향을 이루는 단위들의 존재론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료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칸트가 인과관계의 본질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간적 계기(Sukzession)에 대해 살펴본 다음 (3절), 그 시간적 계기라는 규정이 표현상 흄과 유사하면서도 내용상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시사없는 인과(흄적인 표현으로는 동시적 인과)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명하겠다.(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연성 개념을 매개로 해서 칸트의 인과론이 어떤 면에서 흄에 대한 대답인지를 간략히 정리하겠다.(5절)

## 2. 인과관계는 무엇과 무엇의 관계인가?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명료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인과관계가 적용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한다. 이른바 4원인설로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aitia*론에서는 원인의 범주에 드는 전형적인 예들은 사물들이다. 조각가와 동상, 건축가와 집, 아버지와 아들이 인과의 양향으로 제시된다.

오늘날에도 일상적으로 모기가 팔라리아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마치 인과관계를 사물과 사물사이의 관계로 쓰고 있는 듯도 하다. 그러나 기계론 철학이 등장한 근세이후 인

과관계의 양향을 이루는 존재론적인 단위는 대개 사건으로 이해되었다. 위의 경우에도 모기에게 물리는 사건이 팔라리아에 걸리는 사건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다 현대적이다. 사건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 변화라는 개념과 연관짓는 것이 공통점이다.

논의에 앞서 우선 칸트의 사건개념을 살펴보자. 칸트에게서 사건이란 일차적으로는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상태가 생기는 것” (B236)<sup>1)</sup> 이다. 물이 끓게 되는 것이나 얼게되는 것, 혹은 양초가 녹는 것, 돌이 따뜻해지는 것등은 모두 하나의 사건이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생긴다는 것은 이 상태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현상이 선행하지 않고서는 경험적으로 지각될 수 없다.” (B237) 즉 어떤 상태 Z가 생기는 것이 사건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Z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제1유추에 따르면 Z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공허한 시간일 수 없다. 왜냐하면 아무런 상태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가 생겨나는 것은 공허한 시간 자체와 마찬가지로 지각될 수 없기 때문이다.(B219, 226, 237)따라서 어떤 상태 Z가 없는 (Z)라는 상태가 선행하지 않으면 Z가 생기는 것으로서의 사건은 성립할 수 없고, 성립하더라도 결코 지각될 수 없다. 따라서 칸트에게서 하나의 사건이란 결국 (Z)에서 Z로의 변화를 카리키게 된다.<sup>2)</sup> 제 1 유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체자체는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변화에 대한 인식자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B227) 변화는 제 1 유추의 용어에 의하면 실체가 존재하는 방식, 즉 실체의 규정 (B227)이며, 제 2 유추의 용어법에 따르면 상태일 따름이다. 따라서 칸트적 의미에서 사건이란 동일한 실체의 서로 다른 두 상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일단 칸트의 사건 개념이 명확해지고 나면 현대적 관점에 서있는 우리로서는 한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질문은 다음과 같다. 칸트가 제 2 유추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인과관계는 과연 사건과 사건사이의 관계인가, 아니면 한 사건을 구성하는 동일한 실체의 두 상태간의 관계인가? 실제로 칸트가 분명한 구별없이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기에 양쪽을 다 허용하고 있는 듯 하나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두 경우의 인과관계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첫째, 세가지 유추의 원칙 전체 구조를 보거나, 둘째, 제 2 유추에서의 칸트의 언어사용을 살펴보거나, 셋째, 제 2 유추가 문제로 삼고 있는 주제를 고려해보면, 여기서 제시하는 인과관계의 구성단위는 한 실체의 서로 다른 두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세가지 유추의 원칙 전체 구조를 살펴보자. 제 1 유추에서 칸트는 실체와 우유성을 구분했다. 우유성은 변화(Veränderung)가운데서 변전 (Wechsel)하는 것이며 실체는 이 우유성의 변전을, 따라서 변화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고정적인 것이다. 즉 실체는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변화의 주체가 되는 반면에, 변화하는 것은 이 실체의 존재방식, 즉 실체의 규정(B227) 혹은 실체의 상태(B230)일 따름이다. 이제 이렇게 실체와 우유성(= 실체의 상태)을 존재론적으로 구분한뒤 각각의 관계를 제 2 유추와 제3유추를 통해 규정한

1) 『순수이성비판』에서의 인용은 2판(1787)을 기준으로 하여 본문( )속에 밝히되, 1판에만 있는 부분은 1판(1781)의 쪽수를 밝힌다.

2) James Van Cleve, “Four Recent Interpretations of Kant’s Second Analogy”, Kant-Studien 64/1, 1973, 73-74쪽

다. 제2유추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변화들은 원인과 결과의 결합법칙에 따라 발생한다.” 변화의 주체는 실체이지만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그 실체의 상태가 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화의 발생을 규정하는 인과법칙은 실체의 어떤 상태가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을 규정하는 법칙이고, 이 법칙이 결합할 대상은 한 실체의 두상태이다. 반면에 “모든 실체들은, 그것들이 공간상에서 동시에 지각되어질 수 있는 한, 일관적 상호작용 속에 있다.”(B256)고 명시하고 있는 제3유추에서는 상호작용이란 범주가 실체와 실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관계범주가 적용될 대상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면, 먼저 현상중에서 관계를 맺는 존재론적 단위를 실체와 그것의 상태(=우유성)으로 구분하고 난 뒤(제1유추), 실체들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범주로서 상호작용개념을 제시하고(제3유추), 동일한 실체의 두상태들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범주로서 인과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2유추).

둘째로 제 2 유추의 언어사용을 살펴보자. 칸트는 초판에서는 인과개념의 사용원칙을 “발생(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규칙상 바로 그에 후속하는 어떤 것을 전제한다.” (A189)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이 바로 결과로 규정될 현상으로서, 이것은 우선 제 1 유추에 따르면 실체일 수는 없다. 실체는 생성이나 소멸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B 233) 앞서서의 논의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실체의 상태를 가리킴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렇게 <발생(존재하기 시작)하는 실체의 상태>가 <발생(존재하기 시작)함>이 바로 칸트적 의미에서 사건이며, 이는 무로부터의 발생일 수는 없기에 바로 선행하는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변화이다. 따라서 “두 상태간의 관계”와 그것들의 필연적인 순서가 문제시된다. (B234) 그런데 “현상들의 후속은, 즉 현상들의 발생은 선행상태에 의해 규정된다.”(B240) 즉 “선행상태에서 그 무엇이 전제되고 그 뒤에 언제나 즉 규칙적으로 사건이 일어난다.”(B234) 따라서 “지금 발생하는 것이 그에 후속했던 것에 앞설 수 없으며,<sup>3)</sup> 만일에 선행하는 상태가 정립되면 일정한 사건이 확실히 필연적으로 생긴다.” (B 244)<sup>4)</sup> 그러므로 “우리의 표상들사이에 한 순서가 성립하는데, 이 순서에 따라(발생하는 한에 있어서의) 현재의 것은 주어진 사건의 아직 정해져 있지 않는 상관자로서의 선행하는 어떤 상태에 대한 지시를 준다.”(B244) 제 2 유추 이외에도 칸트는 (B 280)에서도 “지각 속에 주어져 있는 상태로부터 인과성의 경험적 법칙에 따라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은 사물(실체)들의 현존이 아니라 사물들의 상태들의 현존”임을 얘기하고 있고, 더우기 변증론에서 두가지 원인성을 규정하면서 “전자(=자연에 의한 원인성)는 감성계에서 하나의 상태가 규칙에 의해서 그 이전 상태의 뒤에 생기는 경우에 이런 두 상태의 결합이다.”(B560)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칸트가 원인개념을 “사건들의 계열을 규정하는 규칙”(B241)으

- 
- 3) 최재희 번역본은 was, das geschieht를 “사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B244, 238) 이것은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는 번역이다. 발생하는 것은 상태이고, 이 상태의 발생함이 사건이다. 따라서 발생하는 것과 발생함은 존재론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번역해야 한다.
- 4) 여기서 선행하는 상태가 원인이고, 사건이 결과인 셈인데 이것은 인과를 상태와 상태의 관계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 밝혔듯이 사건이란 상태가 생겨남이기 때문에 선행상태와 사건의 관계는 결국 선행상태와 새로 생겨난 상태사이의 관계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 칸트가 들고 있는 예들이 사건과 사건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 실체의 상태들 사이의 관계를 인과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다.<sup>5)</sup>

세째로 사건사이의 인과관계가 제 2 유추의 본래적 주제일 수 없다는 것은 제 2 유추에서 칸트가 주제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더 분명해진다. 제 2유추에서 인과관계를 다루면서 그는 각지가 항상 계기적이다(B234)는 전제하에 각지에서의 주관적 계기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을 문제삼는다. 즉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각들의 계기와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각된 것들의 계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각지에서의 지각들의 계기를 자의적인 것이 아닌 현상자체의 계기(즉, 사건 혹은 변화)로 간주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다. 비록 현상자체에서 계기하고 있는 것이 사건들이라 하더라도, 그 각각의 사건은 의식속에서는 한 사물의 어떤 상태와 다른 상태가 계기적으로 지각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칸트가 문제삼고 있는 의식속에서의 주관적인 계기는 하나의 개별적 사건을 이루는 지각자료들의 계기를 말하는 것이 지 결코 사건과 사건의 계기를 말하는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칸트는 자기논의의 주제인 객관적 계기와 주관적 계기의 구별을 위해 계기하는 상태들이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인가 아닌가를 문제삼고, 그 필연적 결합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불가역성을 들고 있다. 결국 칸트가 주제화하고 있는 주관적 계기와 객관적 계기의 구별은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한 실체의 두 상태들이 필연적인 결합인가 아닌가를 문제삼는 것이며, 하나의 사건이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는 조건을 묻고 있는 것이다. 사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경험된 사건들이 서로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을 문제삼는 것은 지각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계기와 현상자체의 객관적이고 강제된 계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다.<sup>6)</sup> 이렇게 칸트가 제 2 유추에서 문제삼고 있는 주관적 계기와 객관적 계기는 한 실체의 계기하는 두 상태에 대한 지각들이기 때문에 이 지각들의 필연적 결합(B218)을 규정해 주는 인과관계의 항들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이다.

### 3. 시간적 계기로서의 인과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들을 원인과 결과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발생인과론(generative theory of causality)과 계기인과론(succession theory of causality)으로 나누어

5) Rang은 제 2 유추에서의 인과관계가 사건들사이의 관계일 수 없음을 올바르게 논증하고 있긴 하지만, 제 2 유추에서의 칸트의 논변들이나 예들이 대부분 사건과 사건의 관계로서의 인과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필자로서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Bernhard Rang, "Naturnotwendigkeit und Freiheit; Zu Kants Theorie der Kausalität als Antwort auf Hume," Kant-Studien 81/1, 1990, 34쪽

6) Rang, 앞의 책, 34-35쪽, 이점은 칸트가 흄을 비판하는 출발점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글 5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본다면,<sup>7)</sup> 한 실체의 계기하는 두 상태를 인과의 양향으로 삼는 칸트의 인과론은 후자에 더 가깝다. 양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원인의 인과능력,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힘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원인과 결과를 힘을 주는 것과 힘을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전통적인 발생인과론에 대해 체계적인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흄이라는 것은 너무도 유명한 사실이다. 흄은 『인성론』의 인과개념을 분석하는 대목에서 근접성과 계기성을 인과관계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규정한 뒤, 다른 것을 산출하는 어떤 것을 원인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여기서의 흄의 비판요지는 “산출한다.”는 것은 “원인이다”의 동의어에 불과하기에 전자로 후자를 정의하려는 것은 순환적인 것에 불과하고, 원인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알려주지 못한다는 것이다.(『인성론』, 77) <sup>8)</sup> 흄은 이런 자기의 생각을 필연적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절에서 보다 논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흄에 의하면 “효능, 동인, 힘, 에너지, 필연성, 연관성, 산출하는 성질등의 용어는 모두 거의 동의어이다. 따라서 그것중에 어떤 것을 정의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하면서 힘이나 효능에 의해 원인을 정의한 자기이전의 철학자들에 대해 속류적인 정의를 내린 것으로 몰아세운다.(『인성론』, 159) 흄이 이렇게 힘이나 효능같은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그것들이 어떠한 인상에도 근거하지 않아서 경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흄이 인과이론에서 힘이라는 개념을 결정적으로 추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성인과론이 쉽게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흄과 동시대인인 Thomas Reid의 경우만 하더라도 행위 주체에 의한 자발적인 행동을 인과의 기본모델로 삼고, 자연에서의 인과관계를 이 기본모델을 근거로 한 느슨하고 비유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함으로써 발생인과론의 입장을 고수했다.<sup>9)</sup> 칸트도 인간의 실천 내지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발생인과론적인 관점을 취한다. 칸트가 앞에서 인용하였던 자연에 의한 원인성과 대비하여 자유의 원인성을 설명하는 곳에서는 자유를 “한 상태를 스스로 시작하는 능력”(B 561)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 2 유추를 중심으로 한 자연에서의 인과관계를 논의하는 맥락에서는 칸트도 흄과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물론 흄과는 달리 인과관계의 필연성을 인정하는 칸트로서는 원인을 작용이나 힘의 개념과 연관시키는 것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원인을 작용이나 힘에 의해 규정하려는 것은 개념의 뜻을 밝히는 분석에 지나지 않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B 249)고 본 점에서는 흄과 입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제 2 유추에서의 칸트가 인과에 대해 계기인과론적인 관점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더 큰 이유는 인과의 양향은 구성하는 단위들의 성격때문이다. 앞에서 밝혔듯이 제 2 유추에서 인과의 양향은 실체의 상태이다. 그런데 칸트에 의하면 작용은 “실체성의 충분한 경험적 기준”이기에 스스로가 변화하는 주체인 실체의 상태에게는 작용 내지 힘이란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B250) 칸트는 힘을 “실체의 원인성”으로 규정한다.(B 676) 동일한 실체의 여러 현상은 실체의 힘의 작용으로 생긴 결과이다.(B 676) 따라서 인과관계의 규정을

7) R. Harré, *The Philosophies of Science; An Introductory Surve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116쪽

8) Davi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ed.by L.A. Selby-bigge),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이하 「인성론」으로 표기하여 본문( ) 속에 쪽수를 밝히겠다.

9)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ian, 1972, 58쪽

받는 발생하고 소멸하는 모든 상태들은 실체의 힘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실체의 작용에 의해 생긴 결과들(=실체의 상태들)사이의 관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실체는 인과성의 궁극적 주체이다.(B 250) 즉 실체가 없이는 그 실체의 변화하는 두 상태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인과관계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가 작용이나 힘을 실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점은 제 3 유추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동시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들은 일관적인 상호성 속에 놓여 있다.(A 211) 이때 상호성이란 말은 상호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상호작용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상호작용이다. (B 260) 이 상호작용은 서로 교환하는 인과관계이다. 즉 제 3 유추는 실체 상호간의 상호적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의 인과관계의 본질은 작용이다.

이렇게 힘이나 작용은 실체, 혹은 실체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적용되는 개념이기에 한 실체의 상태간의 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제 2 유추에서는 인과를 규정할 때, 힘이란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점이 칸트를 발생인과론자라기 보다는 흄적 전통의 계기인과론자에 더 가깝게 만드는 이유이다.

칸트가 인과관계를 상태와 상태간의 관계로 본다고 해서, 힘을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보고 흄처럼 적극적으로 추방하는 것은 아니다. 확실히 칸트에서의 원인개념은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하나는 원사태(Ur-sache)로서의 원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원사태를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원인이다.<sup>10)</sup> 그러나 칸트에 의하면 힘이란 원인성의 언표양식(Prädikabilien)이다.(B 108) 즉 우리는 원인을 힘을 미치는 것, 또는 능동적인 것으로 표현할 따름이다. 따라서 힘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인성이란 말의 뜻을 밝혀 설명해주는 개념이기는 하다. 결국 칸트입장에서 보면 “원인은 힘을 미치는 것이다.”라는 명제는 분석판단이고, 항진명제(Tautologie)이다. 원인을 왜 힘이란 개념을 통해 표현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이란 말을 힘을 통해 뜻을 밝혀 표현한다 해도, 그러면 힘을 미치는 것과 힘을 받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칸트에 의하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경험적 기준은 시간적 계기이다.”(B 249) 즉 힘을 미치는 것은 시간적으로 앞에 오고, 힘을 받는 것은 뒤에 온다. 이점에서는 일단 흄과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칸트에 의하면 변화란 한 실체가 어떤 상태 (Z)로부터 거기에는 없었던 Z로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Z)가 Z에 선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더군다나 앞에서 얘기했듯이 칸트가 원인을 원사태로서만 규정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원인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더욱 더 그렇다. 쇼펜하우어 이래 칸트의 제 2 유추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가장 전통적인 반론은 이것과 연관된다. 그 반론의 핵심은 칸트가 원인을 원사태로만 파악하고 있기에 propter hoc과 규칙적인 post hoc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제기는 제 2 유추에 비추어 보면 사실 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칸트의 인과관계를 한 실체의 상태와 상태간의

10) 백종현, “사물의 본질과 존재-칸트「순수지성의 종합적 원칙들」의 체계와 의미,” 『철학』 제 32집, 1989, 250쪽.

관계로 설정할 때, 이 비판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지적하고 넘어 가겠다. 우선 칸트는 모든 규칙적인 post hoc을 모두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칸트는 규칙적인 post hoc중 특수한 것만을, 즉 한 실체의 두상태들의 계기만을 인과관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낮 다음에 항상 밤이 오지만 이것을 인과관계로 볼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반론은 적절한 예가 아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점은 칸트가 선행상태전체((Z)전체)를 바로 원인과 동일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적이진 않지만 읽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칸트에 의하면 선행상태 그 자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선행하는 것 안에(in),이 사건을 항상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규칙에 대한 조건이 존재한다.”(B 239) 그리고 “선행상태 안에(in) 무엇인가가 전제되고” (B 243) 그뒤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의 타당성은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예를 들어 햇볕이 차가운 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할 경우, 차가운 돌은 원사태로서의 원인이고 햇볕은 움직이는 힘으로서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 양자는 돌의 <차가우면서 동시에 햇볕을 받고 있는 상태>로 통일적으로 파악될 수 있다. 돌의 <차가우면서 동시에 햇볕을 받고 있는 상태>(상태1)와 <따뜻한 상태>(상태2)는 시간적 계기의 관계이다. 이때 사실 상태1이 없으면 상태2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불에 이미 달구워져 있는 돌에는 햇볕이 비취도 따뜻해지지 않고 오히려 식기 때문이다. 따라서 돌이 따뜻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가우면서 동시에 햇볕을 받는다는 두 조건이 항상 선행해야 하며, 따라서 상태1은 상태2의 원사태로서의 원인과 힘으로서의 원인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상태1중 어느 것이 원사태이고 어느 것이 힘으로서의 원인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설사 구분된다 하더라도 경험적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적인 의미로는 원인과 조건을 구분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한 실체의 두상태간의 계기관계를 인과관계로 규정하는 칸트의 모델에 의해 포괄될 수 있다. 이런 두가지 의미의 원인을 구분하고자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염두에 두었기에 칸트는 “시간적 선행이 원인의 경험적 기준이다.”고 하지 않고, “시간적 후속이 결과의 경험적 기준”이라는 표현 쪽을 택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칸트의 경우 <원인이 앞선다>는 것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진리인 반면, <무엇이 원인인가?>하는 것은 경험적 문제로서 경험적 인과법칙들이 형성되는 출발점이다. 원인이 잘못 탐구되더라도, 즉 어떤 결과에 대한 원인이 틀리게 규정되더라도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잘못 밝혀졌을 뿐이다. 비록 자연과학이 시대적 한계로 인해 아직은 정확히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현상도 원인이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며, 이런 원인의 존재를 전제하고서야 비로소 자연과학적인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 4. 시차없는 인과의 문제<sup>11)</sup>

11) 칸트와 흄은 “동시적”이라는 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 흄의 경우는 물리적인 시차가 없다는 뜻이지만, 칸트의 경우는 물리적인 시차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동시적인 것은 아니다. 제



작용이나 힘은 “실체성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기준”인 반면(B 251) “시간적 계기가 확실히 선행하는 원인의 원인성과 관련에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경험적 기준이다”(B 248)는 칸트의 입장은 원인이 결과에 대해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점을 인과관계의 본질로 본 흄의 입장(『인성론』 76)과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하다. 흄은 유명한 그의 원인에 대한 두가지 정의에서 “선행함”이 원인의 본질적인 조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인성론』 170) 우리가 흄의 두얼굴 중 회의주의자로서의 흄을 중요시하여 흄의 인과론을 불변적 연속(constant conjunction)에 근거한 규칙성이론으로 파악할 때는 원인의 선행성은 더욱더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두대상간의 불변적 연속이 경험될 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흄이 이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바로 시간적 선행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이 기준을 빼버린다면 특히 회의주의자 흄에게서는 원인과 결과의 구분이 힘들어 지고, 따라서 인과관계 자체의 가능근거가 없게 된다. 이런 입장에 근거할 때, 흄이 동시적인 인과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다. 왜냐하면 만약 동시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인과관계에는 불변적 연속이상의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되기 때문이다.<sup>12)</sup> 즉 동시적으로 경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원인이고 하나는 결과라는 것을 설명해야할 다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흄의 일관된 입장에 따르면 이런 기준은 경험을 통해서서는 제시할 수 없다.

그런데 칸트는 제2유추에서 인과관계를 현상들의 계열적 후속에만 제한할 때 문제가 생김을 스스로 인정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이다.(B 247) 아니 오히려 칸트에 의하면 “자연에 있어서 작용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그것의 결과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B 248) 칸트는 예로서 따뜻한 실내와 더워진 난로, 그리고 방석위에 놓여진 금속공과 방석이 오목하게 들어간 상태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인과관계를 일단 시간적 계기의 관계로 보아 원인의 시간적 선행성을 공통되게 주장하고 있는 흄과 칸트로서는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흄은 『인성론』에서 원인이 결과에 반드시 선행하는 것이 절대적인 필연성을 가진 기준이 아니며 동시적일 수도 있다는 반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다. 흄은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례들이 이런 의견들과 모순된다는 주장을 일단 제기하지만, 이것으로는 반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는, 원인과 결과가 결코 동시적일 수 없음을 논증을 통해 확립하려고 한다. 흄은 우선 어떤 시간동안 다른 것을 산출하지 않으면서 자기충족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대상은 진정한 의미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확립된 공리”로 전제한다. 그리고 이 공리에 근거해서 만약 어떤 원인이 결과와 완전히 동시적일 수 있다면, 모든 경우에 있

2 유추 및 제 3 유추에서 볼 수 있듯이 칸트의 경우 지각순서가 가역적일 수 있을 때만 동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 248에서의 동시적이라는 말은 흄의 용법에 따라서 물리적 시차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 글에서도 편의상 시차가 없는 인과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흄적인 의미에서 동시적 인과 라고 쓰겠다.

12) Robert J. Fogelin, “Kant and Hume on Simultaneity of Causes and Effects”, Kant-Studien 67/1, 1976, 51쪽

어서 인과가 동시적이어야 한다고 추론한다. 만약 동시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때 원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사실은 일정시간동안 다른 것에 작용하지 않은 상태로 있게되고, 따라서 작용성을 다시 갖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요소를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앞의 공리에 의할 때 참된 의미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원인이 결과와 동시적이면, 이 결과는 그것의 결과와 동시적일 수 밖에 없고, 모든 원인은 결과와 동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원인이 결과와 동시적이라면 계기하는 현상은 있을 수 없고, 모든 대상은 동시적으로 존재해야만한다. 『인성론』 76) 그런데 이런 결론은 우리가 세계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계기적인 현상과 모순되며, 더군다나 시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주장이 되기에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결과는 원인과 동시적일 수 없으며 원인은 반드시 결과에 선행해야 한다. 일종의 귀류법의 형태를 띤 이 논증에 의해 증명되는 원인의 선행성을, 흄 자신은 시간적으로 선행하면서도 원인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여 필연적 연관성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성질로 간주하긴 했다. 그러나 사실 힘이나 효능이란 관념을 거부한 상태에서 원인과 결과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흄의 경우 시간적 선행성 뿐임이 분명하다.

이런 흄의 논변에는 문제가 있다. 귀류법에서의 흄의 논변은 어떤 원인이 결과와 동시적이라면 확립된 공리에 의할 때 모든 원인이 결과와 동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끌어내고 있는데, 이 공리 자체의 타당성을 문제삼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의 동시적인 인과사례로부터 모든 인과관계를 동시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사실 흄의 이런 추론의 근거에는 일반공리이외에도 흄 자신의 다른 가정이 깔려있다. 그것은 동시적인 인과와 계기적인 인과는 상호 독립적인 종류의 인과로서 개념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기에 상호 배타적이라는 가정이다.<sup>13)</sup> 이런 전제하에서만 동시인과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부터 모든 인과를 동시적인 것으로 추론하는 흄의 추론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흄이 동시적인 인과를 정면으로 거부했던 반면 칸트는 앞에서 보았듯이 동시인과의 현상이 존재함을 일단 인정한다. 자연속에서 경험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동시적이다. 원인이 한순간 전에 존재하기를 중지했었다면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결과는 처음 발생하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언제나 원인의 원인성과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나 칸트에 따르면,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고 시간의 순서이다.

13) Fogelin에 의하면 흄의 논증은 “(1) 어떤 원인이 결과와 동시적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2) 모든 원인이 결과와 동시적일 수 있다.”는 일반화된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끌어내고, 이를 다시 전제로 해서, 결과를 지체없이 동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원인임을 규정하는 공리를 매개로 “(3) 모든 원인은 결과와 동시적이다.”는 결론을 끌어낸다. 그 다음이 결론이 명백히 거짓이기에 그 전제인 (1)을 부정하여 어떠한 원인도 결과와 동시적이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런데 흄이 제시하고 있는 공리는 (2)에서 (3)으로의 추론을 정당화할 수 있지만, (1)에서 (2)로의 추론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추론은 단지 동시적 인과와 계기적 인과를 개념적으로 서로 독립적인 종류로 전제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Fogelin은 흄이 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Fogelin, 앞의 책, 53-56쪽

즉 아무런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런 관계는 존속한다. 원인의 원인성과 그것의 직접적 결과 사이의 시간은 사라진 상태 (verschwindend)일 수도 있다. (따라서 양자는 동시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시간에 따라 규정될 수 있다.”(B248) 여기서 칸트는 동시적인 인과를 일단 인정하고, 이 동시적인 인과를 흠처럼 계기적인 인과와 개념적으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지않고 계기적인 인과의 한 특수한 형태로써 파악한다. 즉 동시적 인과관계는 계기적 인과관계 중에서도, 수학의 극한개념에서와 같이 원인과 결과사이의 시간의 간격은 0에 미분적으로 무한히 접근하여 양항은 동시적인 것으로 경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여전히 <보다 먼저> 라는 의미에서의 시간적 순서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형태의 인과관계이다. 따라서 칸트는 동시적 인과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계기적 인과에 포섭시킴으로써 자신의 이론에 일관성을 기하려고 하는 점에서 흠과 구별된다.

사실 흠과 칸트가 동시인과와 계기인과와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시간의 본성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양자는 서로 다른 시간개념에서 출발하기에 시간적 선행성의 의미도 서로 달라진다.

흠은 시간을 연속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간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은 무한분할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더이상 분할할 수 없는 원자적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인성론』 31) 따라서 흠에서 원인이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것은 원인이 결과보다 앞선 단위시간(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흠이 제일 먼저 제시했던 근접성이란 조건을 고려하면, 바로 앞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흠입장에서 보면 계기적인 인과는 서로 다른 순간에 존재하는 현상들의 관계이고, 동시인과는 동일한 순간에 존재하는 사물들의 관계로서 전혀 별개의 종류이다. 한순간 다른 것의 작용을 받고 바로 다음순간 다른 것에 작용하는 원인으로 이루어진 세계와 한 순간 작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작용하는 원인으로 이루어진 세계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두가지 인과가 함께 존재하는 세계는 정말 불가능한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칸트는 문제제기는 사실 여기에서 출발된다. 두가지 인과가 함께 존재하는 세계가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경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칸트는 양자의 공존가능성을 부정하기 보다는 하나의 원리에 근거해서 설명하려고 한다. 이때 칸트가 전제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생각은 흠과는 다르다. 제2유추에서 칸트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시간이 불가역적인 것이고(B244), 무한분할이 가능한 연속적이라는 것이다.(B244, 254) 즉 시간은 한방향성을 가진 연속체이다. 따라서 원인이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 할 때 칸트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원인이 결과보다 앞선 단위시간(순간)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진행방향에서의 선행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사이의 시간의 양이 0가 되어 동일시점에 존재할지라도 시간의 방향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기

14) Fogelin은 흠과 칸트가 두가지 인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잘 밝혀 주지만, 이 서로 다른 입장이 시간에 대한 그들의 상이한 파악에 근거한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Fogelin, 앞의 책, 52-53쪽. 반면 Paton은 칸트의 경우 이런 해결방식이 그의 시간에 대한 파악과 연관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H.J. Paton,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II*,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0, 281-293쪽

에 원인과 결과의 구별이 가능한 것이다. 칸트가 들고 있는 더워진 난로와 실내의 따뜻함, 금속공과 방석등의 보기(B248, 249)에 따르면 결국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의 선행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의 경험이 판단할 수 있는 원인과 결과사이의 불가역성이다.<sup>15</sup> 즉 방석위에 금속공을 놓으면 오목하게 들어가지만, 방석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위에 금속공이 생기지는 않는다. 따라서 칸트는 비록 동시적인 인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를 경험할 수 있기에, 이를 계기적인과의 특수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5. 인과법칙의 필연성

훔은 인성론에서 인과관계의 본질적 요소로서 근접성, 계기성을 먼저 들고 난 뒤에 더 중요한 요소로서 필연적 연관성(necessary connexion)을 제시한다.(『인성론』 77) 그리고 훔은 인과관계가 함축하는 필연성을 두가지 차원에서 구분한다. 첫째는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원인을 가진다는 것이고(이하 <필연성1>로 표시), 둘째는 특정원인은 특정결과를 필연적으로 낳는다는 것이다.(이하 <필연성2>로 표시)(『인성론』 78) 첫번째가 이른바 인과의 보편성(universality, Allgemeinheit)을 주장하는 명제이고, 두번째는 인과의 일양성(uniformity, Gleichförmigkeit)을 주장하는 명제이다. 훔이 인과의 필연성을 두가지 차원에서 구분하여 질문한 것을 보면, 그가 이 두가지 주장이 논리적으로 상호독립적인 전혀 다른 주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다루는 강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첫째문제에 대해서는 원인-결과에의 관념은 하나가 다른 하나를 논리적으로 함축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훔스, 클라크, 로크등의 증명을 논파하는 것으로 간단히 처리해 버린 후, 둘째문제에 대해서 주제적으로 깊은 분석을 행한다. 불변적 결합이라는 인과의 또 하나의 요소도 이 둘째문제와 연관해서 제기된 것이다.

칸트는 제2유추에서 원인개념이 보편성과 필연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있으며(B241), 사실 제2유추 내용자체가 원인개념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원인개념의 보편성과 필연성에 대한 강조는 A9, A112, B 124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원인개념의 보편성과 필연성을 강조하는 맥락은 항상 원인 개념이 경험에서부터는 올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은 우연적이기 때문이다.(B765) 칸트의 인과론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칸트가 원인개념에 귀속시켰던 보편성과 필연성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 밝혀져야하며, 또한 이 두 특성간의 관계도 분명해져야 한다.<sup>16</sup> 여기서는 위에서 훔이 필연적

15) 칸트의 경우, 인과의 불가역성이 시간의 불가역성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시간의 불가역성이 인과의 불가역성에 근거하는지 문제가 논쟁점이 될 수 있겠는데 어느 경우도 훔과의 차이는 분명하다. 인과와 시간의 불가역성에 대해서는 김효명, “칸트의 훔인과론 비판”의 4 절 참조.

16) 보편성과 필연성의 의미 및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 Cleve는 보편성을 “원인없는 결과는 없다.”는 의미로 보지않고 일양성 내지 훔적인 의미의 규칙성으로 해석한다. 그는 B 124의 “단적으로 보편적인 규칙에 따라서”라는 표현을 인과의 규칙성(즉, 유사한 원인은 항상 유사한 결과를 가진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필연성

연관성 개념을 다루기 위해 제기하였던 2가지 차원의 필연성과 관련해서 필연성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모든 사건은 원인을 가진다>는 충분근거율을 거부한 흄의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흄에 의하면 이 명제는 분석적으로 참일 수 없다. 흄이 좋아하는 실험적 방법에 따라 이 원리를 거짓인 것으로 여겨도 아무런 모순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명제는 경험적으로도 (a posteriori) 참일 수 없다. “모든 사건”에 대한 주장은 우리의 경험이 검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흄은 <필연성 1>에 대해서는 회의주의자 이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필연성 2>에 대해 취한 자연주의자로서의 입장에 근거한다면 <필연성 1>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이성이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나 관습에 의한 것일 수 밖에 없다. 칸트는 흄의 이런 논의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 명제가 분석적이지도 경험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종합적이면서 선험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고자 한다. 제2유추 전반부에서 제시되는 다수의 비슷한 증명들이 충분근거율을 증명하는 것임을 분명하다.(B 246) 여기서의 칸트의 증명은 이른바 “초월적 증명”이다. 즉 어떤 원리의 참됨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가 특정종류의 경험을 가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2유추에서는 전제된 것으로 증명되는 원리가 바로 인과원리이며 우리가 가지는 경험은 사건에 대한, 즉 변화에 대한 경험이다. 따라서 제2유추의 증명을 단순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칸트는 자신의 인식론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칸트에 의하면 현상에 대한 우리의 각지는 항상 계기적이다.(B 225, 234, 244)<sup>11)</sup> 그런데 시간자체는 지각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에서의 동시성과 계기성의 구별은 각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B233) 따라서 어떤 주관적 계기를 객관적 계기로 간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규칙이 없이는 변화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불가능하다.(B242) 그러므로 어떤 주관적 계기를 객관적으로 필연적이게 하는 이 규칙은 각지를 통해서는 주어질 수 없고, 오히려 각지가 주어지기전에 먼저 있어야 한다.(B238-240) 이 규칙이 바로 인과율이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므로 이 경험의 가능근거인 인과율은 참이다. 이로써 <필연성 1>이 증명된다.<sup>12)</sup> 제2유추의 칸트의 논의는 도덕법칙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표현을 빌어온다면 인과율이 경험이 가능하기 위한 존재근거(ratio essendi)이며, 경험가능성이 인과율의 인식근거

에 대해서는 <필연성 1>, <필연성 2> 양쪽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 Cleve, 앞의책, 72-73쪽. 같은 맥락에서 Rang도 제 2 유추의 A판 원칙에서의 “규칙에 따라서 (nach einer Regel)”라는 표현을 흄적인 의미의 규칙성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제 2 유추에서 여러번 사용되고 있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것은 칸트의 인과론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Rang의 경우는 <규칙에 따라서=필연적으로=항상>이라는 동식을 결론으로 하여 <필연성 2>로 해석하고 있다. Rang, 앞의책, 25-30쪽. 필자의 현재 생각은 이와는 반대로 보편성과 필연성이 모두 <필연성 1>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 2 유추에서의 칸트의 전체논의와 보다 정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은 다음기회에 밝히겠다.

- 17) 이것은 여러번 반복되는 칸트의 전제인데, 이 전제에 대해서는 Paton, Ewing, Beck 등의 비판적인 논의들이 있으나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다. 단, 칸트를 주관적 관념론자나 현상론자로부터 구분시키는 중요한 전제라는 점이 중요하다. Cleve, 앞의책, 75-76쪽.
- 18) 제 2 유추에서의 칸트의 논증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특히 영미권의 칸트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논의 하겠다.

거(ratio cognoscendi)라는 것이다.<sup>19)</sup>

제2유추 전반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칸트의 증명들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필연성1>을 주제적으로 다루고 있지 <필연성2>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칸트의 태도는 흄과 칸트의 관계에, 특히 칸트의 인과론이 흄의 인과론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보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흄은 <필연성1>은 간단히 논증하고, <필연성2>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거쳐서 <필연성2>가 한갓 주관적인 필연성이라는 것을, 즉 경험속에 불변적 연속이 주어지면 그것을 관습화시키는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에서 비롯된 필연성임을 밝혔다. 따라서 칸트의 논의가 흄에 대해 대안이 될 수 있으려면 <필연성2>에 대해 논의 하면서 <필연성2>에 대한 흄의 생각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칸트는 흄이 간단하게 지나쳐버린 <필연성1>을 주제화하고 있지 <필연성2>를 주제화하고 있지 않기에, 과연 칸트가 흄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 될 수 있다. 칸트가 흄에게 문제삼고 있는 것은 <필연성2> 자체가 아니다. 칸트에 의하면 자연법칙은 초월적 자연법칙과 경험적 자연법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B263) 초월적 자연법칙은 자연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이고 근원적인 법칙이다. 칸트가 제시한 세 유추가 바로 이런 초월적 자연법칙이다. 반면에 경험적 자연법칙은 경험을 개기로 해서만 성립되고 발견될 수 있지만, 이는 초월적 자연법칙에 따를 때에만 가능하다. 제2유추에 한정해보면 <필연성1>은 초월적 인과율의 필연성이고 <필연성2>는 “경험적 인과법칙들”에 근거한 필연성이다. 그러므로 경험적 인과법칙들에 근거한 <필연성2>에 대한 흄의 분석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지 모른다. 칸트가 보기에 흄의 문제는 <필연성1>이 <필연성2>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점이다. 물론 흄이 명시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논하지는 않기 때문에 칸트의 이런 파악이 과연 객관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칸트의 이해에 따르면, 동일한 객관적 계기의 많은 예들을 지각하고 그것들의 유사성을 매개로 비교함으로써 어떤 사건들이 어떤 현상들 뒤에 언제나 일어난다는 규칙을 발견하는데 이르게 되고 (필연성2), 이를 매개로 해서 원인개념(필연성1)을 만들게되었다는 것이 흄의 논지이다.(B241)<sup>20)</sup> 따라서 흄의 실수는 “우리가 법칙에 따라서 규정하는 것이 우연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법칙자체의 우연성을 잘못 추론한 것이다.”(B794) 칸트입장에서 본다면 흄의 이런 문제는 그가 관념과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칸트용어로 표현해서 표상과 표상의 대상을, 즉 주관적 계기로서의 표상들의 계기와 객관적 계기에 대한 표상을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계기가, 즉 사건이 다른 전제조건

19) Walter Bröcker, “Kants Beweis des Kausagesetzes”, Kant-Studien 78, 314쪽.

20) 칸트의 이런 이해는 흄이 필연성은 하나밖에 없다고 규정하는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인과론』, 171) 물론 흄의 일차적인 의도는 도덕적 필연성과 물리적 필연성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필연성1>과 <필연성2>도 동일한 구조로 성립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없이 당연히 지각되는 것으로 전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흄이 한갓 주관적인 <필연성2>에 근거해서 거부했던 <필연성1>이 전제되어야만, 사실은 마음의 자연적인 성향이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유사한 변화의 반복(즉, 불변적 연속)으로부터 <필연성2>를 형성시킬 때 가장 근원적인 단위가 되었던 개별적인 변화자체가 경험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연성1을 전제해야만이 필연성2에 대한 흄의 분석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 칸트의 비판요지일 것이다.

## 6. 맺는말

제2유추에서 제시되고 있는 칸트의 인과론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의 큰 흐름 하나는 제2유추에서의 칸트의 논증들이 가진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었다. 제2유추에서 칸트가 불합리한 추론(non sequitur)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Lovejoy-Strawson' 테제도 바로 이러한 연구들중 대표적 보기이다. 그러나 이 글은 칸트의 논증이 가진 타당성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칸트가 어떤 모델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 이유는 논증의 타당성을 따지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 칸트가 무엇을 논증하려고 했는가가 먼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논증의 타당성 여부가 유의미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유추에서 제시되는 Kant의 인과론은 텍스트에 충실해 보면 한 실체의 두상태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모델은 사실 인과에 대한 우리의 직관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 필자는 이 모델이 칸트의 입장에 서면 오히려 인과의 본질을 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모델임을 밝히려고 했다. 그리고 칸트에 의하면 결국 한 실체의 두 상태 사이의 필연적인 시간적 계기가 인과관계의 본질로서 제시되는데, 이때 시간적 계기와 그 필연성의 구체적 성격 및 의미를 밝히기 위해 흄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인과문제에 대한 한 주류전통을 이루고 있는 흄의 인과론에 대한 칸트의 비판논점이 무엇 인지를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이것으로써 칸트의 *causa phaenomenon* 개념이 충분히 해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이 물론이다. 우선 제 2 유추와 관련해서도 칸트가 주장하는 인과의 보편성과 필연성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가 더 분명해져야 한다. 그리고 이점이 분명해지더라도 제 2 유추에서의 논의는 칸트적 의미에서의 형식적 측면에 집중된 것이기에, 질료적 측면까지를 포함한 *causa phaenomenon*의 전체 모습은 『*Metaphysische Anfangsgründe der Naturwissenschaft*』에 대한 연구가 보충됨으로써만 밝혀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이 글의 다음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원전 및 번역본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R. Schmidt편, Hamburg, 1956.

N. K. Smith역, *Critique of Pure Reason*, London, 1963.

최재희 역, *순수이성비판*, 서울, 1983.

D. Hume, *A Treatise of Human Nature*, L.A. Selby-bigge편 Oxford, 1980.

◎ 참고 단행본

L.W. Beck, *Essays on Kant and Hume*, London, 1977.

R. Eisler, *Kant Lexikon*, Hildesheim, 1977.

A.C.Ewing, *A Short Commentary on Kant's Critique of Pure Reason* (김상봉역, 순수이성비판, 한겨레, 1988.)

William L. Harper(ed.), *Kant on Causality, Freedom, and Objectivity*, Minneapolis, 1984

R. Harré, *The Philosophies of Science: An Introductory Survey*, Oxford, 1978.

S Körner, *Kant* (강영계역, 칸트의 비판철학, 서광사, 1983.)

H.J.Paton, *Kant's Metaphysic of Experience*, vol.2, London, 1970.

◎ 참고논문

백종현, "사물의 본질과 존재-Kant 『순수지성의 종합적 원칙들의 체계와 의 미』, 『철학』제32집, 1989.

김효명, "Kant의 Hume인과론 비판", 『철학논집』 창간호, 한양대 철학과, 1989.

"D. Hume의 인과론," 『철학논구』제15집, 1987.

Walter Bröcker, "Kants Beweis der Kausalgesetzes," *Kant-Studien* 78/3, 1987.

James Van Cleve, "Four Recent Intepretations of Kant's Second Analogy," *Kant-Studien* 64/1, 1973.

Jerry R. Dodge, "Uniformity of Empirical Cause-Effect Relations in the Second Analogy," *Kant-Studien* 73/1, 1982.

Robert J. Fogelin, "Kant and Hume on Simultaneity of Cause and Effect," *Kant-Studien* 67/1, 1976.



A.T. Nuyen, "Sense, Reason and Causality in Hume and Kant,"  
*Kant-Studien* 81/1, 1990

Bernhard Rang, "Naturnotwendigkeit und Freiheit; Zu Kants Theorie der  
Kausalität als Antwort auf Hume", *Kant-Studien* 81/1, 1990.

Andrew Ward, "On Kant's Second Analogy and his Reply to Hume,"  
*Kant-Studien* 77/4, 1986.